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규련	학번	2012****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6.1.5. ~ 2016.2.28.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한 Times SLC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시설은 세탁실, 급식실, 수영장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있어 공기가 좋았고, 산책하기에 적절하였습니다. 주말이면 트리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 시끌벅적하긴 했지만, 평일에는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학원은 5층 건물이고 4층은 남자 기숙사이며, 5층은 여자기숙사입니다. 특히 학원 바로 앞에 hp로 나가는 버스가 바로와서 시내로 외출하는 것도 편리하였습니다.
수업	오전 8시에 첫 수업이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 수업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이라 힘들기도 하지만 스파르타식으로 진행되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형태는 그룹, 1:1입니다. 레벨테스트를 본 후, 그룹으로 반배정이 되어 그룹수업이 진행됩니다. 리딩포리얼, 발음, 문법, mmc, cnn은 그룹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단어, issue, 패턴은 1:1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룹수업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소 부족했던 스피킹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토론하는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학우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킹을 하면서 부적절한 문법과 발음을 교정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1 수업은 그룹보다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50분간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좋으셨기 때문에 더욱 영어를 즐겁게 학습하였습니다. 선생님마다 다르시지만, 단어암기 또는 영작을 주로 숙제로 내주십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다양한 Activity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빅투어, 오웬드비치, 마닐라투어, 고아원방문, 샌드박스, pundakit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날씨가 화창하여 활동하기에 편리하였지만 뜨거운 태양 때문에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Activity를 할 계획이시다면 Acitvity당 넉넉잡아 1000페소정도 생각을 하시고, 환전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6주차쯤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하여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파견당시 건기였고, 운 좋게도 활동을 할 때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 찻찻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름이 필리핀보다 더욱 덥고 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출시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야합니다.
안전	사실, 파견전부터 필리핀 관련 뉴스 때문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빅 지역은 총기휴대가 금지된 지역이라 비교적 안전하였습니다. 대형쇼핑몰에서 항상 가드가 소지품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밤 늦게 slc 주변을 산책할때에도 안전하였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3명씩 방배정이 됩니다. 에어컨,침대,책상,냉장고,옷장이 있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숲인지라 많은 벌레가 있으므로 벌레퇴치약을 구비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에는 주로 학교식당을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외부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학교식당의 식단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지만, 밥보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찬이 입에 안맞을 수도 있으니 김이나 라면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식당은 맛있는 곳도 있었지만, 어느 곳은 너무 현지 음식이라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맛집을 여쭙어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됩니다. 참고로 줄리비의 알로하챗프버거는 맛있습니다.
교통	두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와 FB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FB를 주로 이용하였고, 짐이 많거나 늦은 시간에 학원에 들어가는 경우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FB는 13페소, 택시는 120~150페소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56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및 기타	500,000원	식비 및 기타 활동비용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환전을 많이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이 부족하여 인출을 하였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50달러, 100달러로 적당한 양을 환전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이 예민한 친구들은 필히 지사제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1~2주가 지나 물갈이를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름이지만, 항상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후두집업이나 후리스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가 커서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출국하기 전에 약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준비하시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부족한 과목관련 1개의 책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짧지도 길지도 않은 8주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담아왔습니다. 첫 주에는 낯선 환경과 빽빽한 시간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리핀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웠습니다. 8시간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항상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아무런 고민 없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영어로 접해보고,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창하게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감"을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모든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값진 경험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유창한 영어 실력을 키우도록 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수빅투어 및 퍼블릭마켓 방문



오헨드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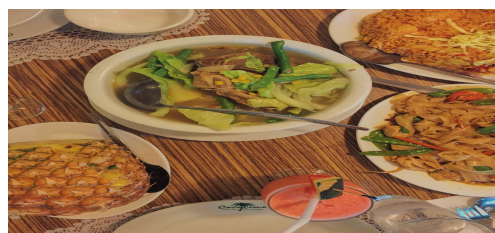
오헨드비치



sandbox



pundakit



코코라임, 줄리비